

언택트 시대,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이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순영, 강균영*
경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The Untact Era,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Ability, Self-esteem on Communication skills in Nursing Freshman

Sun-Young Chung, Gyun-Young Kang*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d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언택트 시대의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인관계와 자아존중감이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W시에 소재한 일 개 대학 간호학과 1학년 336명이었다. 자료 수집은 2020년 05월 11일에서 2020년 05월 21일까지였고, 수집된 자료는 t-test, Pe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대인관계 능력은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능력도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 하부요인은 의사소통, 이해성, 개방성, 민감성, 만족감으로 나타났다. 언택트 시대에 간호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대인관계 능력과 자아존중감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중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 : 언택트, 신입생,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on communication skills of nursing freshmen in the untact era.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36 nursing freshmen at a university located in w city. The data was collected from 11st to 21st, May 2020.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Pe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interpersonal skills of the subject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skills, a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skills. The interpersonal sub-factors affecting communication skills were communication, understanding, openness, sensitivity, and satisfa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of students enrolled in the nursing department in the untact era, and educational interventions and educational interventions that can enhance communication skills by utilizing interpersonal skills and self-esteem are needed.

Key Words : Untact, Freshman, Interpersonal Ability, Self-esteem, Communication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yungdong University Research Fund, 2020.

†Corresponding Author : Gyun-Young Kang(mental74@kduniv.ac.kr)

Received February 19, 2022

Revised March 24, 2022

Accepted April 20, 2022

Published April 28,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9년부터 시작 된 COVID-19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회·문화·경제 등 다양한 영역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COVID-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 국민들의 실천은 비대면 방식의 일반화를 자리 잡게 만들었다[1]

언택트(untact)란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에 부정접두사 언(un)을 붙여 만든 신조어로 비접촉·비대면을 의미한다[2]. 언택트 시대, 교육현장에서 온라인 학습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학습효과 향상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온라인 학습은 감염병의 노출로부터 자유롭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수업, 본인 수준에 맞는 학습속도 조절, 자기주도 학습 등의 장점이 있다[3]. 반면에 온라인 수업에 대한 기술적 준비, 수업운영 및 교육의 질, 학습효과 측면 등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3]. 또한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제한적이라는 한계와 문제점뿐만 아니라[4], 인간관계 형성에도 제약[5]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언택트 시대의 소통은 효율적인 수업 운영과 학습을 위한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 상호작용과 같은 교육적 측면 뿐 만아니라, 대인관계 형성과 상호 이해를 돕는 사회화 기능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의사소통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공통성을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상호 간의 표현과 공통적 이해가 중심이 되는 과정이다[6].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은 간호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 인력과 상호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간호대상자의 건강 및 간호업무의 효율성을 증진 시키므로 실무에서 중요한 역량이 된다[7].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간호교육 과정에 7가지 간호사 핵심역량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8], 그 중의 하나가 의사소통 능력과 협력이다. 이처럼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은 간호사로서 중요한 역량이며 간호교육의 주요 핵심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대면보다 상호 이해를 돕는 과정이 부족할 수 있는 언택트 시대에 간호 대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접근과 연구는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COVID-19로 2020년 1학기부터 비대

면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신입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언택트 시대에 대학생이 된 신입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활 적응과 대인관계 형성을 돕고자 한다. 더 나아가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가 될 것이다. Shafakhah et al.[9]은 의사소통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사소통 훈련을 통한 주요 영향요인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코로나 Pandemic 시대에 있는 현재 시점에서 간호 대학생들의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교육 현장에서 비대면 수업과 소통의 방식으로 SNS,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교육현장 외에도 콘텐츠로 소통하고, 모바일을 통해 원하는 것을 쉽고, 편리하게 획득하는 ICT 기술에 익숙한 MZ세대에 해당한다[10]. 이러한 시대와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장기화되고 있는 COVID-19 상황에서,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의사소통 기술을 익히고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개발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택트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간호 대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느끼는 실습이 시작되는 3학년 과정에 들어서기 전 1학년 과정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의사소통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한다고 하였다[11,12].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며, 자기 존중의 정도와 자신에 대한 가치감 정도를 의미한다[13]. 또한 간호학생으로 느끼는 가치감과 관련 있고[14],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간호학을 전문직으로 여겨 가치관을 확장시킨다고 하였다[15]. 따라서 대학생활 적응 단계에 있는 신입생들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고, 향상을 위한 관심과 적용은 전공만족, 간호전문직관[16-18]을 높이고 대학생활 적응[17,19,20]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는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비대면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한 신입생들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의사소통 정도를 확인하는 일은 학생

들의 대학생활 적응,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7] 향상을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본다.

외에도 의사소통 능력이 공감능력[12,21], 감성지능 [22], 대학생활 적응[23], 학업적 자기효능감[21], 임상 수행능력[24]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ong. et. al[11]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대 인관계와 의사소통 능력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 는데, 이는 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을 체험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COVID-19 시대 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더욱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은 필 수적인 과제가 되어야 한다.

COVID-19 이후 교수자와 학습자들은 준비되지 않 은 상태로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었고, 장기화가 되면서 현재까지 비대면 수업은 운영이 되고 있다. 미래 교육 을 준비하며 비대면 수업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 되고 있다. 대학생 및 교사의 비대면 수업 경험[5,25], 비대면 수업의 효과[26,27], 학습 만족과 몰입[28,29], 비대면 학습 모델 개발[30], 비대면 수업 기반 공감역량 에 관한 연구[31]들이 있었다. 외에도 비대면 교육의 효 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안에 대한 연구[4]등 비대면 수 업의 경험, 효과와 만족도, 학습모형, 교수방법 등의 연 구가 있었다. 그러나 언택트 시대 대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여 이를 교육적, 사회적 기능 측면에 적 용하고자 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장기화 되는 언택트 시대에 간호학 과에 입학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를 확인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는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 상황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언택트 시대, 간호학과 신입생의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 이다.

- 1) 간호학과 신입생의 일반적 특성,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학과 신입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 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학과 신입생의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언택트 시대에 간호학과에 입학한 신입생 의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이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W시에 소재한 일개 간호학과에 입학 한 신입생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365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대상자 수 산정 기준은 G*Power 3.1.3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유의 수준 .05, 효과 크기 .20, 검정력 .90을 기준으로 필요한 표본수를 산정한 결과 최소 255명이었다. 최종 수집된 360부 중 33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고,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표본수를 충족한다.

2.3 연구도구

2.3.1 대인관계 능력

대인관계 능력은 Schlein & Guerney[32]가 개발한 대인관계변화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 RCS) 를 Moon[33]이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 해성의 7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총 25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Moon[2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2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90이었다.

2.3.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genberg[13]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Rogenberg’s Self-esteem)를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긍정문항 5개, 부정문항 5개로 총 10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83으로 나타났다.

2.3.3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은 Rubin & Martin[34]의 ICCS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를 Hur[35]가 수정·보완한 GICC(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노출, 공감, 사회적 긴장완화, 주장력, 집중력, 상호작용관리, 표현력, 지지, 즉시성,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목표 간파력, 반응력, 잡음 통제력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Hur[2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72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79으로 나타났다.

2.3.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0년 5월 11일부터 2020년 5월 21일까지 각 학생들에게 온라인 설문지로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학생에 한하여 동의를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익명성, 비밀보장, 연구 참여 중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고, 어떤 불이익도 없음을 알렸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은 t-test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과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은 Table 1과 같다. 여성이 278명(82.7%)이었고, 종교는 없는 사람이 216명(64.3%), 대면수업을 선호하는 학생이 236명(70.2%)로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t=2.100, p=.036$)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외에도 종교 및 선호하는 수업형태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Interpersonal Ability,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Skill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36)

Variables		N(%)	Interpersonal Ability		Self-Esteem		Communication Skill	
			Mean±SD	t(p)	Mean±SD	t(p)	Mean±SD	t(p)
Sex	Male	58 (17.3)	3.75 (.583)	1.639 (.102)	3.13 (.465)	1.957 (.051)	3.74 (.505)	2.100 (.036**)
	Female	278 (82.7)	3.65 (.382)		2.99 (.458)		3.63 (.355)	
Religion	Yes	120 (35.7)	3.64 (.475)	-.304 (.761)	2.96 (.464)	-1.686 (.093)	3.63 (.401)	-.533 (.595)
	None	216 (64.3)	3.67 (.394)		3.05 (.458)		3.66 (.379)	
Class type Preferred	synchronous	236 (70.2)	3.68 (.431)	1.111 (.267)	3.03 (.459)	.942 (.347)	3.66 (.383)	1.146 (.253)
	asynchronous	100 (29.8)	3.62 (.407)		2.98 (.468)		3.61 (.394)	

$p<0.001^{***}$, $p<0.01^{**}$, $p<0.05^{*}$

3.2. 대상자의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의 정도

대상자의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대인관계 능력은 $3.66 \pm .424$, 자아존중감은 $3.02 \pm .461$, 의사소통 능력은 $3.65 \pm .386$ 로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Interpersonal Ability,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Skill (N=336)

Variables	Min~Max	Mean±SD
Interpersonal Ability	2.46~5.00	3.66±.424
Self-Esteem	1.50~4.00	3.02±.461
Communication Skill	2.53~4.93	3.65±.386

3.3. 대상자의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과의 관계

대상자의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과의 관계는 Table 3과 같다. 대인관계 능력은 자아존중감($r=.588$ $p=.000$), 의사소통 능력($r=.798$ $p=.000$)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능력($r=.503$ $p=.000$)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 능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Table 3. Correlations of Interpersonal Ability,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Skill (N=336)

	Interpersonal Ability	Self-Esteem	Communication Skill
Interpersonal Ability	1		
Self-Esteem	.588(.000***)	1	
Communication Skill	.798(.000***)	.503(.000***)	1

$p < 0.001^{***}$, $p < 0.01^{**}$, $p < 0.05^*$

3.3. 대상자의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이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 자아존중감이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인관계 능력 하부 요인 7개와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의사소통 능력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공차 한계 .372~.632, 분산팽창인자(VIF) 1.583~2.685로 공차가 모두 1이하, VIF가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 Watson test 값은 1.705로 잔차는 자기상관이 없고 독립성을 갖기 때문에 회귀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91.720$, $p=.000$), 결정계수(R^2)는 .692로 69.2%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 하부요인은 의사소통($\beta=.273$ $p=.001$), 이해성($\beta=.217$ $p=.001$), 개방성($\beta=.209$ $p=.001$), 민감성($\beta=.170$ $p=.000$), 만족감($\beta=.136$ $p=.004$)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beta=.074$ $p=.092$)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4. Influencing Communication Skill on Interpersonal Ability and Self-Esteem (N=336)

Variables		Communication Skill		
		β	t	p
Interpersonal Ability	Satisfaction	.136	2.893	.004
	Sensitivity	.170	4.293	.000
	Communication	.273	5.574	.000
	Open-heartedness	.209	4.148	.000
	Trust	-.069	-1.794	.074
	Intimacy	.043	.891	.374
	Understanding	.217	4.720	.000
Self-Esteem		.074	1.690	.092
$R^2=.692$ $F=91.720$ $p=.000$				

4. 논의

본 연구는 언택트 시대에 간호학과에 입학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 상황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대인관계 능력은 3.66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로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62점[19], 간호 대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연구에서는 3.71점[18],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74점[24]으로 본 연구 대상자들의 대인관계 능력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대학생활에

서 대인관계는 학우, 동아리 활동, 교수, 교내직원 등과의 상호교류 속에서 이루어진다[36]. 특히 대인관계 역량은 간호교육의 핵심역량 중 하나로, 임상현장에서 보건의료인, 환자, 보호자 등과 치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 그러나 비대면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한 신입생들은 대학생활의 상호교류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COVID-19로 인한 대학 신입생의 비대면 수업 경험 연구[20]에서 선배 및 동기와의 인간관계 부족이라는 범주가 도출되었다. 신입생들의 대인관계 부족은 대학생활 적응[19,20], 전공만족도[18]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언택트 시대에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소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Lee & Kim[37]은 온라인 수업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교수자와 상호작용부족, 학생 간 상호작용부족을 설명하고 있다. Bryan et al.[38]은 학습 환경에서 교수와 학생간의 긍정적 관계는 학생의 행동과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현재까지 생활속 거리두기, 비대면 수업 등의 언택트라는 한계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의 개선과 변화는 필수가 되었다. 따라서 교수자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생참여를 높이고, 쌍방향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운영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수-학생, 학생-학생 간 라포 형성과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노력에 관심을 갖도록 교수자 뿐만 아니라 대학 차원에서도 온라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3.02점(4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는 2.72[39], 2.95[40], 3.29[41]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Zamanzadeh et al.[14]은 간호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은 그들이 간호학생으로 느끼는 가치감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지각한 전문성 수준과 사회화, 간호학생으로서의 자신의 열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하였다[14].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대인관계 능력은 상관관계[11,1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은 필요하다. 그렇다면 Zamanzadeh et al.[14]이 설명하는 것처럼 간호학과 신입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간호학생으로서의 가치감, 열의를 갖

고 대학생활을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교육과정, 교수법, 교수자와 긍정적 관계 형성[38]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비대면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한 신입생이 열의를 느끼며 대학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교수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교수자의 역량 개발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과 대학차원의 다양한 교육적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은 3.65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3.80점[42], 3.81점[24]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택트 시대의 신입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고, 그들의 의사소통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COVID-19로 비대면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한 이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는 대인관계, 대학생활 적응[19, 43], 전공만족[18]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므로 본 연구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COVID-19로 인한 갑작스런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은 학생들이 의사소통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의 제약을 가져왔다[44]. 이에 의사소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44]. 교수학습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도구는 거의 없어 이에 대한 교육학적 접근이 요구된다[44].

본 연구 대상자의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대인관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능력은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 능력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대인관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간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24, 45]와도 일치한다. Song, An & Chung[11], Kim[12]도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간호학생의 대인관계 기술은 의사소통 능력과 임상역량과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있고[46], 임상수행 능력과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24]. 따라서 간호사로서 중요한 핵심역량 중 하나인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교수자의 노력은 중요한 역할이 된다. 특히 비대면으로 대학생활이 시작된 학생들의 의

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향상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과정은 이들의 대학생활 및 학과 적응, 더 나아가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갖추는데 기초가 될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특히 대인관계능력과 의사소통 능력과의 관계가 높은 상관성이($r=.798$)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교육환경에서 교수자의 역할, 교육 콘텐츠 등의 변화를 위한 노력은 당연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 하부 요인은 의사소통, 이해성, 개방성, 민감성, 만족감 순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의사소통을 기반을 이루어져 의사소통 없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기 어렵다. 특히 인간의 생명과 건강문제를 다루고 있는 의료현장에서의 치료적 관계 형성을 위한 대인관계 역량과 의사소통능력은 간호 대학생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역량 중 하나가 된다. 표현과 이해의 과정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과 훈련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 요인으로는 이성적으로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하며 수용할 수 있는 이해성, 자신의 내면이나 행동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개방성, 예민한 민감성, 동료들과의 관계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져 흐뭇하게 여기는 만족감[32]이었다. 이는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적인 자세가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Lee & Choi[47]도 자기수용이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경유하여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표현과 이해라는 쌍방향적인 의사소통, 대인관계 과정에는 상황, 태도, 피드백, 의사소통 기능, 지식 정도, 문화, 사회체계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6]한다. 이를 인지할 때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결국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언택트 시대에 대학생이 된 신입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1학년 교육과정에 자기이해를 돕는 교과목 및 프로그램이 반드시 운영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이다. 이는 교육과정 및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beta=.074$ $p=.092$)으로 나타나 선행연구[11,42]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능력은 상관관계($r=.503$ $p=.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비대면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한 학생들로, 코로나 19로 인한 자존감 저하, 우울, 무력감[5]등을 경험할 수 있다. Mohr, Holtbrügge & Berg[48]는 이러닝 수업은 학생-교수, 학생-동료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에 유용하다고 하였다. Kim & Park[49]은 비대면 수업에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업방법 만족과 학습 환경 만족이라고 하였다. 이는 비대면 수업일지라도 학생들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높여 수업방법 및 환경의 만족을 높이고[49], 간호학생으로서의 가치감, 열의를[14] 갖고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운영해 나갈 때에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의 향상에 영향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수업운영 방법, 학습 환경에 대한 교수자의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대학생활과 교육과정 속에서 경험하고 학습해야 하는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의 경험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언택트 시대의 대학생들의 의사소통,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정도를 확인하는 일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언택트 시대에 대학생이 된 간호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 능력과 자아존중감을 확인하였고,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대인관계 능력과 자아존중감 향상이 필요함을 알았다. 이에 본 연구는 언택트 시대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상담과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언택트 시대에 간호학과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대인관계능력, 자아존중감이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외에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과 종교 및 선호하는 수업형태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인관계 능력은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 하부요인은 의사소통, 이해성, 개방성, 민감성, 만족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COVID-19의 확산으로 비대면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한 2020년 간호학과에 입학한 일개 대학 신입생들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COVID-19 Pandemic 시대의 대학생들의 학년별, 전공별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들의 학년 변화에 따른 종단 연구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COVID-19가 종식되거나 토착화되어 일상으로의 복귀가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COVID-19 이후의 대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과 비교해 보는 연구도 제언해 본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으로 비대면 대학생활을 시작한 신입생들의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였다.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언택트 시대의 대학 신입생들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점은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1] Y. S. Lee & D. K. Shin. (2020). An Investig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Online Classes in the Untact Era Caused by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3(4), 39-57.
- [2] J. Y. Lee. (2020. 10. 06.). Please protect our language from COVID-19. *GYEONGGI PROVINCE All Rights Reserved* (Online).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010061830269051C109&s_code=C109
- [3] D. J. Lee & M. S. Kim. (2020).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n the practices of online learning in the COVID-19 situation and future directions.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3(3), 359-377.
- [4] D. H. Lee & D. H. Lee. (2021). Effective communication method for e-learning under the COVID-19 pandemic: Focusing on ITO.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6(1), 67-82.
- [5] H. S. Choi. (2021). A Study on the Non-face-to-face Teaching Experience of College Freshmen due to Covid-19.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5(1), 273-286. DOI : 10.46392/kjge.2021.15.1.273
- [6] K. J. Lee et. al (2014). *Interpersonal and Communication Skill in Nursing*. Seoul : Shinkwang Publisher
- [7] E. J. Ji. M. R. Bang & H. J. Jeon. (2013). Ego Resilience, Communication Ability and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4), 571-579. DOI : 10.5977/jkasne.2013.19.4.571
- [8] S. H. Bae & J. S. Park. (2013). The recognition of achievement and importance of nursing program outcom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2), 203-214. DOI : 10.5977/jkasne.2013.19.2.203
- [9] M. Shafakhah, L. Zarshenas, F. Shari & R. S. Sarvestani. (2015). Evaluation of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abilities in clinical courses in hospitals. *global Journal of Health Science*, 7(4), 323-328. DOI : 10.5539/gjhs.v7n4p323
- [10] Y. W. Ju. (2021. 02. 06).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for Generation MZ, the Leading Role in the Post-Corona. *KISA REPORT*, 1.
- [11] M. S. Song. H. J. An & Y. H. Chung. (2010).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 and Communication in Nursing Students. *Korean J Health Commun*, 5(1), 40-48.
- [12] J. I. Kim. (2021).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Skill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3), 118-128. DOI : 10.5762/KAIS.2021.22.3.118
- [13]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4] V. Zamanzadeh., L. Valizadeh., R. B. Gargari., A. Ghahramanian., F. J. Tabriz & M. Crowley. (2016). Nursing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Self-Esteem: a Qualitative Study. *J Caring Sci*. 5(1), 33-41. DOI : 10.15171/jcs.2016.004
- [15] T. A. Iacobucci. B. J. Daly. D. Lindell & M. Q. Griffin. (2013). Professional values, self-esteem and ethical confidence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Nursing Ethics*, 20(4), 479-490. DOI : 10.1177/0969733012458608
- [16] E. J. Lee & H. S. Kang. (2017). The Influence of Self-esteem and Nurse's Image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Freshman. *The*

-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8(5), 745-760. DOI : 10.22143/HSS21.8.5.42
- [17] J. H. Oh. (2014).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0), 873-884. DOI : 10.5392/JKCA.2014.14.10.873
- [18] E. J. Lee & S. J. Lee. (2018). Associat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s with Irrational Beliefs and Social Support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7(4), 313-320. DOI : 10.12934/jkpmhn.2018.27.4.313
- [19] Y. H. Oh & M. S. Park. (2020). Influence of Interpersonal Ability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Freshman in Nursing College: Mediation Effect of Empathy Abil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8), 331-341. DOI : 10.14400/JDC.2020.18.8.331
- [20] H. S. Choi. (2021). A Study on the Non-face-to-face Teaching Experience of College Freshmen due to Covid-19.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5(1), 273-286. DOI : 10.46392/kjge.2021.15.1.273
- [21] J. H. Cho, K. H. Baek & M. O. Cho. (2019). Influenc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compassionate competence on academic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6), 257-265. DOI : 10.14400/JDC.2019.17.6.257
- [22] N. H. Kim. (2018). Factors Affecting Communication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6), 735-744. DOI : 10.21742/AJMAHS.2018.06.84
- [23] S. M. Park & J. H. Kim. (2020). The Influence of gender-friendly environment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f male nursing students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6(4), 357-365. DOI : 10.5977/jkasne.2020.26.4.357
- [24] Y. K. Yang. (2018). Influences of Communication skill and Interpersonal ability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 Fundam Nurs*, 25(2), 99-108. DOI : 10.7739/jkafn.2018.25.2.99
- [25] H. R. Park. (2021). Exploring the Experience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in Non-face-to-face Physical Education Classe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for Girls and Women*, 35(1), 15-32. DOI : 10.16915/jkapesgw.2021.3.35.1.15
- [26] A. R. Lim. (2021). A Study on Effectiveness of Online Interactive Cinematherapy Course Due to COVID-19: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pathic Ability.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2), 57-66. DOI : 10.5762/KAIS.2021.22.2.57
- [27] D. H. Lee. (2021). Learning effects of a service marketing class using online PBL.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5(2), 101-115. DOI : 10.21298/IJTHR.2021.2.35.2.101
- [28] H. Y. Kang. (2021). The effect of proficiency in teaching in untact physical education class on learning satisfaction and immersion by elementary preparatory teacher.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25(4), 211-225. DOI : 10.15831/JKSSPE.2021.25.4.211
- [29] K. H. Ko. (2021). A Relationship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Non-face-to-face Class Satisfaction and Class Immersion in the COVID-19 Situation.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10(4), 273-294. DOI : 10.30974/Kaice.2021.10.4.11
- [30] K. H. Byon, D. H. Choi, W. H. Cho & K. M. Yun. (2021). Development of a Havruta Learning model and exploring its applicability in non-face-to-face real-time online classes. *2021 Winter Annual Meeting of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9(1), 129-130.
- [31] J. A. Song. (2021). A Study on the Empathy Competence of Adolescents Using Empathic Reading Based on Online Remote Class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1), 541-565.
- [32] S. Schlein., B. Guerny & L. Stover. (1971).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dissertation]. [Pennsylvania]: Pennsylvania University.
- [33] S. M. Moon. (1980). A study on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training group counseling. *The Journa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19(1), 195-204.
- [34] R. B. Rubin & M. M. Martin. (1994). Development of a measure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 11(1), 33-44.
- [35] G. H. Hur. (2003).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7(6), 380-426.
- [36] Y. S. Lee, S. H. Park & J. K. Kim. (2014). Nursing

- Students' Self-Leadership,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College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6), 229-240.
DOI : 10.5392/JKCA.2014.14.06.229
- [37] D. J. Lee & M. S. Kim. (2020).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n the practices of online learning in the COVID-19 situation and future directions.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3(3), 359-377.
- [38] V. D. Bryan, J. Lindo, P. Anderson-Johnson & S. Weaver. (2015). Using Carl Rogers' person-centered model to expla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t a school of nursing. *J Prof Nurs*, 31(2), 141-148.
DOI : 10.1016/j.profnurs.2014.07.003
- [39] O. H. Koo.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awareness, Self-esteem, Empathy and Characte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7), 172-182.
DOI : 10.5762/KAIS.2021.22.7.172
- [40] Y. E. Lee, E. Y. Kim & S. Y. Park. (2017). Effect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Child Health Nurs Res*, 23(3), 385-393. DOI : 10.4094/chnr.2017.23.3.385
- [41] S. Y. Oh & S. N. Park. (2010). The Changes of Self-esteem and Leadership during Two Year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2), 186-193.
- [42] M. J. Kim. (2019). A Study on Communication Competency, Self-assertiveness and Self-esteem and Influencing Factors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0(2), 603-617. DOI : 10.22143/HSS21.10.2.43
- [43] J. Y. Song. (2017).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Freshmen's Adaptation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2), 335-345. DOI : 10.5762/KAIS.2017.18.12.335
- [44] E. Wittenberg, J. V. Goldsmith, C. Chen, M. Prince-Paul & B. Capper. (2021). COVID 19-transformed nursing education and communication competency: Testing COMFORT educational resources. *Nurse Educ Today*, 107. DOI : 10.1016/j.nedt.2021.105105
- [45] E. H. Jo, H. S. Kim & S. J. Hwang. (2020).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ability in the relation between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6(3), 290-298.
DOI : 10.5977/jkasne.2020.26.3.290
- [46] K. G. Kang, M. J. Lee & H. Y. Cho. (2021). Interpersonal skills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ve and clinical competencies among nursing students: A descriptive study. *Nurse Educ Today*, 99.
DOI : 10.1016/j.nedt.2021.104793
- [47] A. J. Lee & S. M. Choi. (2015).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elf-acceptance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e: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6(4), 209-224.
- [48] A. T. Mohr, D. Holtbrügge & N. Berg. (2012). Learning style preferences and the perceived usefulness of e-learning.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17(3), 309-322.
DOI : 10.1080/13562517.2011.640999
- [49] M. Kim & H. Park (2021). Class Satisfaction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Students' Communication, Self-Directed Learning, and Problem-Solving Abilities in Non-Face-to-Face Flipped Learning Class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27(4), 1249-1272.
DOI : 10.15833/KAFEIAM.27.4.1249

정 순 영(Sun-Young Chung)

[정회원]



- 199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간호학 석사)
- 2012년 2월 : 서울 불교대학원대학교(명상학 박사)
- 1991년 3월 ~ 1996년 3월 : 국군간호사관학교 조교수

- 2015년 2월 :~ 현재 : 경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인간관계, 의사소통, 미술치료, 명상
- E-Mail : chunyo9@kduniv.ac.kr

강 균 영(Gyun-Young Kang)

[정회원]



- 2006년 8월 : 을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간호학 석사)
- 2013년 8월 : 을지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 박사)
- 2015년 4월 ~ 2016년 2월 :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경동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 정신간호, 의사소통, 예술치료, 긍정심리
- E-Mail : mental74@kduniv.ac.kr